

<2018년 10월 1일 월요일 새벽, 주 말씀>

◎ 또 월요일 새벽이 돌아왔습니다.

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우선 먼저는

‘사탄을 이기는 방법, 처리하는 방법, 없애는 방법’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.

<사탄>은 ‘적’이기 때문입니다.

먼저 <적>을 멸하는 것이 큼니다.

<건설>보다 먼저는 ‘적’을 멸해야 됩니다.

1. 1999년도에 외국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, 월명동 자연성전 조경은 했는데 기념관을 못 지어서 아쉽다고 하니,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, “그것은 이번에 할 일이 아니다. 싸우고 이긴 다음에 ‘기념관’을 짓는 것이다.” 하셨다. 그래서 ‘아, 지금 안 지어도 되는구나.’ 하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순간 <행주산성 팔각정>이 보였다. <행주산성 팔각정>은 일본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서 지은 것이다. 당시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없으니, 여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주워 가져다 주면, 남자들이 그 돌을 던지면서 싸워 결국 이긴 것이다. 이같이 <기념관>도 싸우고 이긴 다음에 짓는 것이다.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하고, 사탄도 이기고 ‘3.16 휴거기념관’을 지었다.

2. <승리>란, 사탄과 마귀와만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다. <하나님이 원하시는 일>을 해 드려야 그것이 ‘이긴 것’이다. 두 가지, 곧 <사탄과 마귀>와 싸워 이겨야 되고, <하나님이 원하는 일>을 해

드려야 ‘이기는 것’ 이다.

3. <남자와 여자 사이>에도 ‘이기는 것’ 이 있다. <사랑>을 해 줘야 이기는 것이다. 여자에게 다른 사람이 붙어서 쫓아다니는 것을 끊게 해 주고, 마귀를 끊게 해 주고, 그리고 사랑해 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긴 것이다. 이기고서 그다음에 ‘같이 살 집’ 을 짓는 것이다.
4. 홍콩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심란해서 TV를 틀었더니, 만화 영화가 나오고 있었다. <개미>로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 놓은 영화였는데, 거기에 ‘왕자와 왕자의 애인’ 이 나오고 있었다. 다른 개미들이 그 둘을 공격하고, 그 둘은 쫓기고 있었다. 그러다 절벽까지 쫓겨 와서 할 수 없이 절벽에서 뛰었는데, 몸 중간에서 날개가 돋아 그 둘은 날 수 있게 됐다. 결국 왕자와 왕자의 애인은 큰 강물 위에 흘러가는 나무 잎사귀에 딱 앉아서 웃으면서 가게 되었고, 그 둘을 쫓던 개미들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다. 이 영화를 보면서, ‘나와 같구나.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.’ 했다. 그리고 <따르는 자들>은 ‘신부’ 이고, <주>는 ‘신랑, 왕자 격’ 인 것을 알고 앞으로 이와 같은 처지로 가는 것을 알았다. 그러면서 해외로 나가서 사탄과 싸우고, 마귀와 싸우고, 귀신과 싸우고, 생활과 싸우고, <하나님의 할 일>을 놓고 행하면서 싸웠다.
5. <사탄, 마귀>만 이겼다고 해서 크지 않다. <사탄과 마귀>도 이기고, ‘하나님의 할 일’ 을 해야 그것이 큰 것이고, 승리한 것이다.<하나님이 원하시는 것>을 해 드려야 된다.

6. <주>는 지금까지 ‘하나님이 원하시는 것’을 다 해 드렸다. <시대 십자가>를 지고, <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창조 목적>을 이루고, 그러고서 다 이겼을 때 <3.16 휴거기념관>을 지었다. 고로 <3.16 휴거기념관>은 ‘연애하다 결혼해서 사랑하며 살고 있는 시대 신부들의 입장’과 같이 되었다. 끝까지 따르고 승리해서 <휴거 역사>를 이뤘듯이, 끝까지 해서 이기고 승리해서 <3.16 휴거기념관>을 짓게 되었다. 그래서 <3.16 휴거기념관>에서 휴거 역사를 이루지 않았느냐.

7. <3.16 휴거기념관>은 다른 말로 하면, ‘예식장’이다. <하나님의 뜻을 이루고, 역사를 이룬 장소>로서 거기서 ‘결혼식’을 한 것이다. <휴거>가 ‘결혼식’이니, <3.16 휴거기념관>이 ‘예식장’인 것이다.

8. <사탄, 마귀를 이기는 방법>은 크게 ‘두 가지’가 있다. 그중에 가장 큰 것은 ‘기도’다. 기도해야 이긴다.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계를 보고 ‘사탄, 마귀’에 대해 알아야 이긴다. 모르면, 이길 수 없다.

9. 기도한다고 무조건 사탄, 마귀가 보이는 것이 아니다. <자기 급>이 높아야 본다. <영안이 뜨인 사람>, <계시자들>은 사탄, 마귀를 잘 본다. <하나님이 쓰시는 전문가>를 통해서 보고, 그리고 자기에게 사탄, 마귀가 오는지 잘 살펴야 된다.

10. 기도할 때 ‘사탄, 마귀’가 안 보여도, ‘마귀다!’ 하는 <느

킴>이 온다. 마치 눈을 감아서 화롯불은 안 보이는데, ‘뜨거운 느낌’이 자꾸 오는 것과 같다. <뜨거운 느낌>이 들면, 무조건 ‘뜨거운 물’이 있든지, ‘뜨거운 불’이 있다. - 이같이 판단해야지, 눈으로 볼 때까지 계속 있으면 안 된다. 물론 기도하다가 순간 졸 때 보이기도 한다. 선생이 옛날에 교회에 갔는데, 계속 졸려서 순간 졸았다. 그때 보니, 거지 같은 남자 노인이 내 앞에 나와 똑같이 앉아서 졸고 있었다. 그래서 그때 “이 귀신아! 졸음 마귀야! 나가라! 물러가라!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!” 했더니 사르르 사라졌다.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기도했다. <교회에 와서 조는 사람들>은 그 옆에 ‘졸음 마귀’가 와서 그런 것이다. 피곤해서 졸고, 일을 많이 해서 졸고, 운동을 많이 해서 졸기도 하지만, 사탄과 마귀는 그 영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.

11. <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> - 이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다.
12. 아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. <도둑질을 하는 자들>에게 아예 틈을 안 주면, 도둑질을 하려 들어갈 수가 없다.
13. <흠>이 있으니, 흠집을 잡는 것이다. <흠>이 있으면 다른 취급을 해 버린다.
14. <마귀>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. <도둑>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.

15.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, ‘<마귀>에게 틈을 주지 마라.’ 했다.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, “<마귀>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. 한 번 도둑을 맞았으면, 두 번째에는 도둑을 맞지 않게 해라.” 하셨다.
16. 마귀가 <틈>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. <틈>을 보고 쫓아온다.
17. <흠>이 잡히면, 계속 흠집을 잡는다.
18. <병마>에도 ‘틈’을 주지 말아라. <병>에 대해서도 ‘틈’을 안 주면, 병이 올 수가 없다. 왜?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니까 병이 올 수 없는 것이다. <정기 검진을 받아서 검토하는 것>이 ‘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’이다. 그리고 계속 운동도 해야 된다.
19. <사탄, 마귀들의 전술>이 1만 가지가 넘는다. 그러니 그 전술 중에 하나는 읽힌다는 것이다. 그 하나를 가지고 사탄, 마귀들이 온다. 어떤 사람은 그 한 가지 전술에 한 번에 나가떨어지기도 한다.
20. <하나님의 전술>은 1조가 넘는다. <시대 신부들>은 ‘그 많은 하나님의 전술’을 가졌으니, 이겨야 된다.
21. 아예 틈을 주지 말아라. 아예 외면해 버려라. 그러면 마귀는 ‘틈’이 없으니 못 들어간다.

22. <도둑>도 ‘틈’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. 그래서 <도둑들>은 집에 사람이 있으면, 사람을 불러내서 집을 비우게 한 다음에 틈을 만들어서 도둑질을 한다. <섬리사 사람들>을 빼 갈 때도 “우리 교회 이야기 한 번만 들어 봐라.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.” 하면서 빼 간다.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가서는 ‘자기 말’을 한다. 그러나 끝까지 가 보면, 거기서는 <휴거의 열매>가 자라지 않는다. <기형 열매, 독 열매, 먹지 못하는 열매들>이다.

23. <사탄, 마귀>는 그냥 안 물러간다. 마귀에게 하나하나 따져야 된다. 가령 물건을 샀는데 흠이 있으면, “새것이라고 팔아서 샀는데, 흠이 있네요? 헌것이 아닙니까?” 하고 흠을 가지고 따져야 물러 주지, 그냥은 안 물러 준다.이같이 마귀에게도 따져야 된다. “너,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들었잖아. 배신했잖아. 네 조상 루시퍼가 하나님을 불신했는데, 너희도 같은 사상이지 않느냐? 고로 잘못되지 않았느냐?” 하고 따져야 된다. 그러면서 “물러가라! 나는 ‘의인’이다.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다.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.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안 믿는다. 그러니까 너는 마귀다! 물러가라!” 해야 된다.

24. <사람>도 불법을 행한 자가 있으면 따져야 된다. 따져야 이기고 승리하지, 그냥은 못 이긴다.

25. <축구를 할 때>도 ‘상대의 모순’을 파악하고 그때 볼을 잡고 달아나서 골을 넣어야 된다. 모순 없이 해야 이긴다. <모순>이 ‘하나’라도 있으면, 골을 못 넣는다.

26. <사탄과 마귀>는 항상 따지러 쫓아다닌다. - 이것이 <마귀의 특징>이다. 그렇게도 잘 따진다. 쫓아다니면서 “너는 언제 죄를 지었다.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도 네가 하지 않았느냐?” 하고 따진다. <마귀의 종류>도 여러 가지가 있다. 고급 마귀들은 이같이 따지고, 또 어떤 마귀는 멍청하다. 고로 무조건 들러붙어서 나가지도 않고,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한다.
27. <사탄, 마귀들>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, 그 ‘죄의 밥’을 먹고 산다. 고로 죄를 안 지으면, 사탄, 마귀들이 굶어 죽는다. <의>만 행하고 <죄>를 안 지으면, 사탄, 마귀들이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한다. 고로 <틈>을 주면 안 된다. <흠>이 없어야 된다.
28. <악을 행하는 자들, 인간 마귀들>에게 ‘흠’이 잡히지 않게 계속 행하니, 그들은 ‘거짓’을 만들어서 따진다. 절대 ‘흠’이 있으면 안 된다. <조건>이 있으면 안 된다. <새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, 흠이 없는 사람, 조건이 없는 사람>이 이긴다. 금이 가면, 그것은 눈에 흰히 보인다. 고로 아무리 “그것은 금이 간 것이 아니다.” 하고 거짓을 고해도 안 되는 것이다. <근거>가 있으니, 꿈쩍도 못 한다. 고로 <따질 때>는 계속적으로 틈을 주지 말고, 조건을 주지 말아야 된다. <도둑들>에게 ‘물을 뜨러 갔을 때, 장 보러 갔을 때, 잠깐 집을 비웠을 때’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. <어린이들>이 사고 나는 것도 ‘틈이 있을 때’ 순간 물에 빠져 죽고,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서 감전돼 죽는다.

29. <틈>에서 문제가 일어난다.

30. <틈 시간>을 더하면 엄청난 시간이 된다.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, “순간의 시간,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.” 하셨다.

31. <순간의 틈>이다. 그 틈을 통해서 사탄도, 마귀도 들어온다.

32. <사탄, 마귀>는 아주 교활하고 무식하다. 이 사탄, 마귀를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. <사탄, 마귀, 귀신>을 보는 눈을 떠서 꼭 봐야 된다. 이번에 ‘사탄, 마귀, 귀신을 보는 눈’을 뜨게 할 것이니, 보아라. 그리고 많은 생명들 가운데서 ‘사탄, 마귀에게 뺏긴 자들’을 과감하게 끌어와라. 그들은 도움을 원한다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